

일제 수탈의 길 '번영의 벚꽃길'로 되살린다

전주-군산 30억 들여 추진 문화·역사 경관 새롭게 조성 사이클 등 국제 스포츠 유치 도,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일제 수탈의 상징”인 전주-군산 ‘번영로 100리 벚꽃길’이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주·군산·익산·김제 등 4개 시와 함께 30억원을 들여 벚꽃길 100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번영로 벚꽃길 되살리기’ 사업을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스팔트 포장 신작로인 26번 국도, 전북 전주와 군산을 잇는 4차선의 40km 도로는 ‘수탈의 길’로 통한다.

일본이 곡창인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해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일제강점기인 1908년 이 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그런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이 도로 양쪽에는 한때 벚나무가 죽 늘어선 ‘벚꽃 100리길’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봄이면 흐드러진 벚꽃을 배경으로 떠들썩한 축제가 한바탕 펼쳐져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곤 했다.

하지만 1976년 전주-군산 도로 4차선 확장 때 심은 6000여그루의 벚나무들이 30년을 넘기면서 죽기 시작해 2000년 전후로 축제는 중단됐고 관광객 발길도 딱 끊



전주-군산 ‘번영로 100리 벚꽃길’이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전주 군산간 목천동 벚꽃길.

〈광주일보 자료사진〉

졌다. 때맞춰 이 도로 인근에 전주-군산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2002년 건설되면서 차량마저 외면, 교통량이 급감했다.

전북도는 우선 죽어서 불품없는 벚나무를 뽑아내기로 했다.

벚나무를 새로 심고 주변 문화·역사 경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한편 마라톤이나 사이클 등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도로 인근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픈 역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금은 등록문화재가 된 삼례 양곡 창고와

만경강 폐철도 등이 그것들이다. 양곡 창고와 폐철도는 일제가 호남평야에서 수탈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전 보관하거나 운반한 철로다.

특히 삼례 양곡 창고는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다. 내부 또한 당시 쌀의 신선도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 잘 보존돼 있다.

1970년대까지 관내 양곡 창고로 활용됐으나 이후 삼례역이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옮겨가고 도심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양곡 창고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완주군은 이 창고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체험장으로 고쳤다.

또 1920년 건설 당시 한강 철교 다음으로 긴 교량 철교로 알려진 만경강 철교는 기능이 상실되자 한때 철거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보존이 결정됐다.

양정기 전북도 산림복지과장은 “번영로 벚꽃길이 새롭게 조성되면 옛 추억을 되살려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연합뉴스

버스타고 편안하게 남도한바퀴 돌아오

17일부터 20개 노선 운영 요트투어 등 새 상품 출시

광주·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오는 17일 올해 첫 출발한다. 올해 남도한바퀴의 특징은 20~30대 젊은층과 수도권 여행객을 공략할 새 상품 출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8년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오는 17일부터 20개 노선으로 운영한다.

올해 운영 계획은 990회다. 지난해 981회보다 9회 늘었다. 지난해 운영실적은 탑승인원 3만1439명, 회당 평균 32명이다. 전년 대비 평균 탑승인원이 45.5% 증가했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을 활용한 해양관광, 20~30대 젊은층을 겨냥한 테마여행, 전라도 방문의 해를 기념한 전북 연계 코스 등을 새로 선보인다.

해양관광 상품으로 첫 선을 보이는 고흥 속섬(에도)은 봄철 푸른 속이 무성하게 올라 피로에 지친 현대인에게 힐링을 제공한다. 또 지난해 최고 탑승율을 기록한 고흥 거문도, 청정바다의 숨결을 느끼는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등 5개의 섬 코스가 운영된다.

젊은 취향을 겨냥한 상품으로는 카페

와 요트투어가 있다. 담양 메타프롬방스·담빛예술창고 등 카페거리와 커피농장 체험이 가능한 카페투어, 바다를 거리는 짜릿함과 선상 파티의 황홀함에 빠질 신안 요트투어는 20~30대의 인기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 연계 테마여행도 새로 내놨다. 조선 중종 때 문신인 정림선비 박수량과 우리나라 최초의 사색서원 중 하나인 정읍 무성서원을 연계한 장성-정읍 선비여행, 효심 가득 삼천포 일편단심 춘향을 연계한 곡성-남원 심정춘향여행, 구비구비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와 마음까지 푸르른 청보리밭 등 데이트코스인 영광-고창 청보리밭여행 등 3개 코스가 운영된다.

이 밖에 광양 와인동굴, 보성 제암산 휴양림, 진도 점도 웰빙등산로, 무안 못난이등산 등 새롭게 등장한 관광지도 눈여겨볼만 하다.

남도한바퀴 이용요금은 9900원이다.

섬 여행과 신안요트 투어는 승선료를 포함해 각각 1만9900원과 2만5000원이다. 탑승 정보와 예약을 위해서는 남도한바퀴 홈페이지(http://citytour.jeonnam.go.kr)와 금호고속 전용 상담센터(062-360-8502)를 이용하면 된다. 노선은 계절과 축제 등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읍시-한우아이엘, 첨단과학산단 45억원 투자협약

20여명 신규 고용 창출 기대

정읍시가 한우아이엘(주)와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9일 정읍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사진)에는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과 백양수 한우아이엘 대표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우아이엘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2만5603㎡(7745평) 부지에 45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이번 투자로 2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우아이엘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읍 제2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친환경 식품 용기와 육식용 판별 생산에 이용되는 PP(폴리프로필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생산 제품은 일본에 수출하고 대기업에도 납품한다.

협약식에서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은 “정읍의 희망이자 미래 동지인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량 기업유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읍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

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는 이원컴포텍(주)과 (주)쓰리에이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투자협약을 체결한 총 26개 기업체가 정상 운영 또는 건축 중에 있다.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율은 한우아이엘을 포함 75%이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오디뽕 이용 ‘삼계탕’ 개발

부안군, 참프레와 협약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부안농공단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표 닭가공기업인 참프레와 함께 대표특화작목인 오디뽕을 이용한 ‘오디삼계탕’ 개발에 나섰다. 11일 밝혔다.

참프레 마케팅본부 제품개발팀에서 개발 중인 오디삼계탕은 절분과 감초 등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뽕잎과 뽕자리를 닭발과 함께 우린 진한 육수에 향산화색소인 C3G와 라스베라톨이 풍부한 부안참뽕 오디를 넣어 고압살균 방식의 레토르트 포장으로 오디뽕의 영양과 색을 그대로 담기 위한 막바지 연구에 박자를 기하고 있다.

강성선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은 “부안지역 오디농가와 양계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화순군, 만연산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6억원 투입...화장실 등 설치

화순군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겪고 있는 만연산(동구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만연산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6월 말까지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205번지 등 5필지 4872㎡에 대형버스 8대, 장애인용 2대, 일반형 49대 등 6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화

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만연산은 지난해 7월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가 개장한 후에는 산림치유 명소로 널리 알려지면서 월평균 2만5000여명(일일평균 750여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다.

군은 주차장 설치와 함께 ‘동구리 호수공원~주차장~만연산 치유의 숲’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숲길 0.9km도 조성할 예정이다. /화순=나성종기자 nsj@kwangju.co.kr

장성경찰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선관위와 지방선거 대비

장성경찰서(서장 김학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9일 경찰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 경찰관들이 단속을

위해 알아야 할 선거법 주요내용과 선거단속 때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신뢰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장성경찰서는 이번 교육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하는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